

광주·전남 8월 1일까지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

직계가족·상견례는 최대 8인

유흥시설 자정 이후 영업금지

광주시와 전남도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제한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따르면 19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허용되며,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사적모임 예외적용은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최대 8인까지 허용 ▲상견례 최대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시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면 100인 미만 100인 미만 및 4㎡당 1명 이용가능, 돌잔치 전문점 외 장소 16명까지 가능 등이다.

광주시는 정부에서 권고한 예방접종 최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를 4명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

기로 했으며, 전남도는 19일께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도는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기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대로 유지한다. 해당 기간내에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개별 식장별 출입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시간은 축소된다. 노래연습장(코인)은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제한된다.

카페·식당은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

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를 금지한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영화관·공연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스크린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인원 비율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지금과 같이 수용인원의 50%까지만 허용되며, 모임·식사·숙박과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는 금지된다.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만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발 확산세가 거센 만큼 수도권 방문자는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면서 “시민들께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현장을 방문,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올해 또 되풀이돼 정말 송구”

선별검사소 찾아 의료진 격려 “땀범벅 된 모습 안쓰러워”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인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삼성역 임시선별검사소는 현대백화점 확진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검사를 실시한 검사소 중 한 곳으로, 문 대통령의 이날 현장 방문은 수행 인원을 최소화해 이뤄졌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더위에 코로나19 대응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의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의료진이 땀범벅이 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쓰럽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에게 “아쉬운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운 날씨가 가장 힘들다”는 한 관계자의 말에 “앞으로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니 폭염대책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들에게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열음조끼 지급 상황,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휴게실 등을 살펴보고 “의료진이 휴식시간이라도 온전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실의 안정적인 냉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인력 교대가 자주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경찰·군 인력과 함께 검사 및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 지원 상황을 챙겼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국민들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임시선별검사소에 설치된 차양막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덕분에 국민들이 함께 잘 이겨내고 있다”며 “지난해 여름에도 고생하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되풀이돼 대통령으로서 정말 송구한 마음이다. 이번에도 함께 확실하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청소년 첫 접종…고3·교직원 63만명 화이자 1차

광주 2만465명 대상…접종 후 가슴통증·호흡곤란 살펴야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백신을 맞는다. 국내에서 청소년을 접종군으로 백신 접종이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고3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19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다.

전국 3184개 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 63만명의 예방접종이 전국 29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된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 교육법상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대안학교, 미인

가 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기관에 재학·휴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과 2022학년도 대입 응시 조기졸업 예정자가 접종 대상이다. 접종 대상 교직원에는 재직, 휴직, 파견자 등 학교에서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모든 종사자가 포함된다. 광주에선 재학·근무중인 고3 및 교직원 등 총 2만465명이 대상이다. 백신종류는 화이자 백신이며, 5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진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첫 접종인 만큼 보호자와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았고, 고3 학생은 교사

의 지도에 따라 신분증과 접종시행 동의서, 예진표 등을 가지고 접종센터를 방문하게 된다. 만일 접종일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접종을 연기할 수 있다.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 접종 뒤 심근염과 심낭염 등이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슴통증과 압박감, 호흡곤란, 호흡시 통증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백신을 접종한 뒤 주로 16~24세 남성에게서 심근염과 심낭염 등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발생 확률은 접종 100만건당 4명 정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7~8월 여름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공공빅데이터 시스템 ‘행복e음’ 활용…보호 대상가구 확인

광주시는 “7~8월을 ‘여름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생계 곤란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휴·폐업자, 실직·일용근로자, 최근 기초수급·긴급복지 탈락 가구 중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중복 입수자, 노인 및 1인 가구 중 고위험정보 입수자 등이다.

시는 공공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행복e음)을 적극 활용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또 생활이 어렵지만 소외되기 쉬운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위기정후정보가 2종 이상 입수된 대상 가구도 발굴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를 통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 실시하되, 필요 시 대면 조사·방문을 통해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파악된 복지요구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등 공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업 지원, 사례관리, 기타 민간서비스 자원 등도 연계한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정후 정보가 확인된 1156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법정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연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전남도 공직자

학동 붕괴사고 피해가족에 성금

광주시, 전남도, 광주 동구 공직자들이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피해 가족을 위해 성금을 모아 전달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자율 모금에 6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면서 1300여만원이 모였다.

광주시는 전남도에서 전달한 1000만원,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동구 직원들이 기탁한 성금 등 모두 3700여만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유족, 부상자 가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김일웅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본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야,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 200, 500, 1800)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6670-9800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3천(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바,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